

광주·전남 5월 아파트 분양가 소폭 상승

㎡당 평균분양가 290만·235만원 전년보다 ↑ 1인 가구 증가로 소형가구 선호 현상 두드러져 지방 새아파트 '불꺼진 집' 10곳 중 3곳 심각

■ HUG '5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광주·전남지역 지난달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각각 290만, 235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광주 아파트 전용면적 102㎡초과 평균 분양가격은 다른 면적과 달리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부동산시장에 미분양·미입주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내놓은 '2018년 5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최근 1년간 광주지역에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290만원으로 전

년동월과 같았고, 전남은 222만원으로 전월과 같았으나 전년동월 대비 7만 7,000원 올랐다.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광주 분양가는 291만원으로 전월 289만원에 비해 2만1,000원, 전년동월 287만원에 비해 각각 3만4,000원 상승했다.

전남은 234만원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7만7,000원 올랐다.

전용면적 102㎡ 초과 분양가는 광주는 245만원으로 전월과 같았으나, 전년동월 335만원보다는 90만5,000원 내렸다. 이는 제주(177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형 면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며 대형 면적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은 246만원으로 전월과 같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6만3,000원 상승했다.

한편 부동산시장에 미분양·미입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년동월과 같았고, 전남은 222만원으로 전월과 같았으나 전년동월 대비 7만 7,000원 올랐다.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광주 분양가는 291만원으로 전월 289만원에 비해 2만1,000원, 전년동월 287만원에 비해 각각 3만4,000원 상승했다.

전남은 234만원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7만7,000원 올랐다.

전용면적 102㎡ 초과 분양가는 광주는 245만원으로 전월과 같았으나, 전년동월 335만원보다는 90만5,000원 내렸다. 이는 제주(177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형 면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며 대형 면적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은 246만원으로 전월과 같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6만3,000원 상승했다.

한편 부동산시장에 미분양·미입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경기가 좋았던 2015-2016년 '묻지마 분양'을 하던 건설사들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 아파트단지 입주율은 72.2%로 나타나 10곳 중 3곳은 입주하지 못했다.

박홍철 책임연구원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은 경우, 대출규제로 잔금을 구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부산·경상지역 입주율은 71.4%로 관련조사를 시작한 지난달 7월 이후 가장 낮았다. 광주·전남지역도 68.9%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같이 지방 아파트 미분양도 쌓이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5만9,585가구로 이중 82.6%가 지방에 몰려있다. 아파트를 다 짓고도 주인이 없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2,683가구로 81%가 지방이다. /서미애 기자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18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창립 50주년 기념 환전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 창립 50주년 환전 이벤트

8월까지 최대 80% 환율우대...경품 증정도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18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창립 50주년 기념 환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환율우대와 경품증정 등 두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된다.

먼저 환율우대 이벤트는 최근 5년 이내 광주은행에서 환전거래를 한 고객들에게 환율우대 안내문자가 전송되고, 해당 문자를 영업점 직원에게 제시하면 환율우

대를 받을 수 있다. 환율우대 혜택은 주요 통화(USD, JPY, EUR)는 80%, 중국 위안화(CNY)는 50%가 제공된다.

두 번째 경품증정 이벤트는 최근 5년 이내 환전거래가 없었더라도, 행사기간 미화 500달러 이상 거래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50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2등(100명)에게는 3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서미애 기자

중기기술진흥원, 중소기업 200곳에 29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산학협력력 기술개발 사업 중 '전략협력' 지원대상에 선정된 200개 중소기업에 29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진흥원은 286개 과제를 평가해 200개를 선정하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

대상으로 지난 12일 협약설명회를 했다. 전략협력 지원사업은 특정 산업·기술 분야 전략적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고성장이업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산연전용과 연구마을로 나뉜다. 올해 하반기 모집은 이달과 다음 달에 운영기관을 통해 추진된다.

광주·전남 고용률 전년 동월대비 상승

실업률 광주 4.0%·전남 2.9% 하락

■ 호남통계청, 5월 광주·전남 고용 동향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률이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9.7%로 전년 동월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0.9%) 증가했다.

산업별로 건설업이 1만4,000명(19.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만2,000명(4.1%) 증가했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만8,000명(-10.9%), 제조업은 6,000명(-4.8%) 각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2만명(3.6%) 증가했고, 이 중 상용근로자는 2

만1,000명(5.5%), 일용근로자는 1,000명(2.4%) 증가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는 3만1,000명으로 5,000명(17.4%) 증가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63.2%로 전년 동월대비 1.0%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97만3,000명으로 2,000명(0.2%) 증가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9,000명(3.0%), 도소매·음식숙박업은 7,000명(3.6%) 증가했다.

반면 광공업은 8,000명(-7.6%),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4,000명(-4.7%) 각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만 6,000명(2.7%) 증가했다.

이 중 상용근로자는 7,000명(1.9%), 임시근로자는 6,000명(3.3%), 일용근로자는 3,000명(5.8%)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 9,000명으로 1,000명(-7.4%) 감소했다.

이번 자료는 광주 1,600가구, 전남 1,8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13일부터 19일까지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나라 기자

'광주~대구' 노선 가족 여행객에 인기

금호고속, 평일 9회·주말 11회...정류장 주변 볼거리 풍성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광주-대구' 간 노선버스가 가족단위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7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1일 개통한 '광주-대구' 노선버스는 광주 유스퀘어(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 대구 서부정류장까지 평일 9회, 주말은 11회 운행하고 있다.

이 노선에는 금호고속이 이용객 편의를 위해 승차감이 뛰어난 '우등버스'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광주-대구' 노선보다 저렴한 1만 6,700원을 받고 있다.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광주-대구

(서부정류장) 노선이 인기를 끄는 데는 서부정류장 주변에 이월드, 두류공원, 앞산전망대, 83타워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지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여행의 묘미인 식도락을 즐기기에 제격인 앞산 맛 돌레길, 안지방 곱창골목 등도 인접해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코스도 각광 받고 있다.

'광주-대구(서부정류장)' 노선의 주중상·하행선 버스출발시간은 오전 7시10분, 8시30분, 10시, 11시30분, 오후 1시, 2시30분, 4시, 5시40분, 7시

30분으로 동일하다.

이용객이 물리는 주말(금·토·일)에는 '광주-대구(서부정류장)' 상행선 노선의 경우 오전 10시40분, 오후 3시10분에, '대구(서부정류장)→광주' 하행선 노선은 오후 1시50분, 6시30분에 버스가 각각 추가 투입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대구 서부정류장 인근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노선 개발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동부권 중소기업 수출 협의회

광주·전남 중기청 등 12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전남 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 등 12개 유관기관과 '전남동부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남 동부지역 수출기업의 정부지원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수출 지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라남도 백중재 담당관은 "이번 실무자 회의를 통해 기관별 추진하던 수출사업에 대해 이해하게 됐고, 지역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기가 된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최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 등 12개 유관기관과 '전남동부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했다.

김진형 청장은 "오늘 개최된 수출지원 실무회의가 전남 동부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출지원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남구청에서 당신의 취업성공을 응원합니다.

남구청 취업지원센터 062-607-2715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NAMGU